

외모를 이용해 명성을 얻은  
화가 『렘피카』



박 회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요즘 외모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월한 외모는 삶을 향상시켜주는 도구가 된다. 자신의 탁월한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했던 화가가 렘피카다.

렘피카는 19세기 말 폴란드 바르샤바 상류층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부모의 이혼 후 부유한 할머니 덕분에 일류 스위스 기숙학교에서 상류층 교육을 받는다. 1916년 가난하지만 잘생긴 러시아 변호사 렘피카와 결혼하지만 러시아 혁명 후 남편이 볼셰비키들에 의해 감금되는 일을 겪게 되자 파리로 이주한다.

파리에서 렘피카는 모리스 드니와 앙드레 로트 아래서 그림을 공부하면서 당시 문화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다. 렘피카는 화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동경했던 삶을 살기로 한다.

렘피카가 자신의 동경을 담은 작품이 <녹색 부가티를 타는 타마라>다. 이 작품은 렘피카의 자화상으로 대표작으로 그녀는 화가라는 직업보다는 그레타 가르보를 연상시킬 정도의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유명했다.

붉은 색 입술의 여인이 녹색 부가티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녀의 눈은 반쯤 잠겨 있고 깊게 눌러쓴 실크 모자 사이로 금발이 보인다.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카프 뒤로 도시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붉은색 입술은 여성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남성성을 암시한다. 남성은 여성의 지배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렘피카는 부가티를 소유한 적이 없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통해 여성의 욕망을 그렸다. 또한 그녀는 차가운 스타일의 자화상을 통해 예술가적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렘피카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힌다. 당시 화가는 남자들의 세계였다. 여성의 창의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녹색 부가티를 타마라>-1925년, 목판에 유채, 40\*90, 개인소장

렘피카는 화단에 주목을 받기 위해 미술의 전통과 관습을 깬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경험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보수적인 화단에 정면으로 승부한다.

렘피카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작품이<네 명의 누드>다. 이 작품은 남성들을 자극하기 위해 여성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네 명의 여인들은 붉은 입술을 내밀며 몸을 비틀고 있다. 무표정한 여인들은 욕정을 자극하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고 비틀린 몸은 풍만한 가슴을 강조한다.

19세기 말 금기시되었던 동성애를 과감하게 표현한 이 작품으로 렘피카는 화단에서 스타가 되었다.

파리 미술계의 스타가 된 렘피카는 전쟁 기간 동안 작가, 연예인, 예술가, 과학자, 기업인, 망명한 동 유럽의 귀족 등 파리 사교계의 중요 인사들의 초

상화를 세련된 모습으로 묘사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난한 망명가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는 무용수 나나 데 헤레나의 후견이었던 부자 바론 쿠프너에게 접근해 결혼한다.

렘피카는 남편과 함께 1939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할리우드로 이주한다. 할리우드에서 그녀는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된다. 하지만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화가가 아니라 부자 아내일 뿐이었다.

렘피카는 할리우드에서 파리에서의 영광을 찾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그림을 선보인다. 당시 미국은 추상 표현주의가 대세였다. 그녀는 추상미술을 선보이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결국 렘피카는 남편이 죽자 멕시코에서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대표작들을 묘사하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대로 말년에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타마라 드 렘피카<1898~1980>는 매혹적이고 우아한 주제를 아르데코 방식으로 표현해 비평가들로 격찬을 받았다. 그녀는 1920~30년대 전성기의 이후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았지만 1970년대 들어 렘피카의 작품은 광고 포스터로 많이 복제되었다.



<네 명의 누드>-1925년, 캔버스에 유채, 130\*81, 개인소장